

# 전북교육청, 추경 1295억원 증액

### 코로나19 대응 사업·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도의회 제출

올해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102억 원, 또 이로 인한 경기 둔화가 예상 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1,2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난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비 전수입 68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 수입 150억 원 등 본예산 3조 5,351억 원 대비 총 1,295억 원(3.7%) 늘어난 3조 6,646억 원 규모다.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 따라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 조정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등 반영·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교통안전 환경,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학교교육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본예산 편성 후 추가 발생된 재정수요 등을 반영했다. 예산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마련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증감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과 학교 신설, 누리과정 지원금 등 의무 지출경비를 우선 반영했고,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어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과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및 냉난방용 전기요금 추가 지원비를 반영했고, 학교 간 감염 방지를 위

해 개학 후 소요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를 편성하는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102억 원을 마련했다. 또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북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 전북 학생수련원 복합모험시설 설치 및 외 부환경개선, (가칭) 완주 청소년 자치 복합문화센터 설립, (가칭) 장수교육 복지문화시설 신축 등 교육여건 개선, 시설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 등에 290억 원을 편성했으며,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검정 디지털교과서 보급 지원 등 교육사업에 138억 원을 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월액 및 불용액의 최소화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했고, 기 편성된 본예산 사업 중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며, "최근 경기 하락 등으로 내국세 규모가 축소돼 교부금 재원 규모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교육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교육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1,2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출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제3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은성 기자

##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 지원사업 전북대 정화현·최은빈 학생 선정

전북대학교 최은빈·정화현 대학원생(에너지저장변환공학과 석사과정)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재지원센터(WISET)에서 지원하는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학 분야 여성 대학원생이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국에서 일반과정 62팀과 심화과정 25팀을 선정했다. 전북대에서는 최은빈 대학원생(사진 오른쪽)이 심화과정에, 정화현 대학원생(사진 왼쪽)이 일반과정에 각각 선정돼 앞으로 우수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최은빈 대학원생은 WISET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다 '식품 가공용 유해물질 억제 감자 품종 개발을 위한 CRISPR/Cas9 RNP 유전자 교정기술구축' 연구를 7개월 동안



진행한다. 또한 정화현 학생은 '반추대성 청경채 육종 소재 개발을 위한 CRISPR/Cas9 RNP 유전자교정 기술구축' 연구주제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는 이정환 교수(생명공학부·사진 가운데)의 지도하에 학부 대학원생과 지역 고교생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어서 미래 동량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3차년도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북대 교원과 대학원생의 실험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전북대를 비롯한 전국 5개 대학이 선정됐다.

## 전북대,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

### 3차년도 사업비 13억원 확보... 전방위적 창업지원 기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3차년도 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대 교원과 대학원생의 실험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전북대를 비롯한 전국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전북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예비창업실업실업의 사업화 지원과 대학원 연구원들에 대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북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사업'과 '예비창업패키지사업' 등에도 선정된 바 있어 대학 실험실 창업에서부터 예비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창업지원에 나서게 됐다. 이번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전북대는 3차 년도 사업비로 13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3차 년도 계속지원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단계평가에서 전북대는

창업지원본부의 유기적 조직 구성과 교원창업 지원 제도, 창업인재 양성 실적, 선제적 창업유망기술의 발굴 등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2018년 4억을 시작으로 지난해 5억7천만원에 이어 230% 증액된 13억 원의 지원금이 전북대 창업지원단에 배정됐다. 전북대는 지난 2년간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 운영을 통해 총 6건의 실험실창업(법인 2, 개인 4) 성과를 냈으며, 이외에도 33건의 지식재

산권을 확보하고 창업경진대회 학생리그에서 3팀을 입상시키는 등 우수 창업인재 발굴 및 육성 실적을 이뤄냈다. 또한 올해 3차년도에는 '대기업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고효율 유수불리장치', '고상탄산 공정을 이용한 저산소 타아타늄 분말 제조 기술' 등 선발전 14개 창업유망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실험실창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관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실험실이 논문을 위한 수동적 연구에서 벗어나 사업화를 위한 적극적 기술개발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아낌없는 지원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제1회 검정고시 5월 23일로 추가 연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5월 9일로 연기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5월 23일로 추가 연기할 예정이다. 응시인원은 전북은 1,155명, 전국적으로 총 3만3,963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13일에 제1회 검정고시 시행일을 당초 4월 11일에서 5월 9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기 결정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 응시자와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초졸·중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상

급학교 진학 등을 고려한 조치다. 검정고시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c.go.kr)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고되며,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로도 통보하고, 추후 연기에 따른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 사항 등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정고시를 추가로 연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응시자는 시험 당일까지 건강관리에 유의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신설 유치원 이름 지어주세요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2021학년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 유치원 (가칭)혁신유치원 외 2개원의 교명 제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모된 교명 중 선호도 조사를 위해 부르기 쉽고 친근한 어감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교명을 심의 기준으로 신설 유치원당 3개 후보 교명을 선정했다. 이번 선호도 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 전자민원창구 설문조사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참여가 가능하며, 조사기간은 20일부터 28일까지다. /장은성 기자

## 비대면수업 학사모니터링 운영

전주대학교는 비대면수업 학사모니터링위원회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자칫 떨어질 수 있는 수업의 질을 개선시키고 학생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비대면수업 학사모니터링위원회는 학생 대표 10명과 교수와 직원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13일에 위촉됐다. 지난 16일 1차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총학생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 학생들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 전반이 논의됐다. 온라인 강의 음질 개선, 학생-교수 간 메시지, 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한 소통 체계 확립, 신속한 출결 반영, 특별장학금 도입 등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